

가요 창법 연구 -소몰이 창법-

조태선^{1*}

¹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The Study of Vocalization for Korean Pop Music So-mo-ri Technique

Tae-Seon Cho^{1*}

¹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2000년대 들어서 가요계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많은 남자 가수들이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현상이 그것이다. 혹자들은 그것을 “소몰이 창법”이라 이름 붙였는데 당시에는 특이한 목소리로 인해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80년도 초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가 히트를 하면서 많은 가수들이 조용필의 창법을 익히고자 했던 적은 있었지만 많은 남자 가수들이 똑같은 목소리와 창법으로 앨범까지 발표한 적은 유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몰이 창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 또한 발성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Abstract From the year 2000, an ironic phenomenon struck the Korean pop field with a number of male vocalists singing with similar voice tone colors and with almost the same vocal techniques. People called it "So-mo-ri", and this technique caught on with the public during that period of time. In the early 80s, plenty of vocalists tried to imitate Cho Yong-phil's singing method after his hit song 'Lady outside the window'. However, producing and releasing albums with the same singing method had never been done in history .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analyse and conclude what the "So-mo-ri" technique was and how this technique began. I would further like to research the vocalization methods that were used.

Key Words : Vocal, Popular music, Breath, Song

1. 서 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음악을 거론 할 때 순수음악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음악이라면, 대중음악은 독특한 느낌과 개성이 요구되는 음악이라 예기 할 수 있다. 또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다소 정적인 음악이 순수 음악이라면, 대중음악은 대중들의 취향이나 욕구에 맞춰진 다소 적극적인 음악이 라고 흔히들 예기한다. 이렇듯 대중음악은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간 대중음악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며 살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대중음악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대중가요를 유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 대중음악분야에도 그러한 유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중 하나가 일명 “소몰이 창법”이다. 이 창법은 소를 몰때처럼 “워” “워”와 같은 소리, 즉 추임새를 넣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나중에는 마치 소 울음소리와 같은 발성으로 노래하는 현상까지 생겼으며 이를 통칭해 “소몰이 창법”이라 부르게 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 Tae-Seon Cho

Tel: +82-10-2201-9686 email: entheos@korea.com

접수일 12년 04월 03일

수정일 12년 05월 03일

게재확정일 12년 06월 07일

본 논문에서는 “소몰이 창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과연 소몰이 창법으로 노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등에 대해 연구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2. 본 론

2.1 음악적 배경

한국의 대중음악 역사를 살펴보면 70년대 포크, 80년대 발라드, 90년대 랩 등의 장르가 각 시대별로 유행하였다. 이처럼 대중음악분야에 있어서 유행이란 음악의 장르별로 존재해왔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 역시 그 음악장르에서 요구하는 창법대로 부르는 것이 당연하였다.

포크의 경우는 적정한 중음의 음역대에서 쉽고 편한 창법으로 노래하였고 락앤롤은 중, 고음의 음역대에서 다소 커칠고 터프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였다. 또한 발라드의 경우는 저음에서 고음까지 다소 깔끔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이는 해당 장르의 요구하는 일반적인 요구치로서 가사, 멜로디 구성, 악기편성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목소리로 불러야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초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를 발표하면서 그의 창법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가수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창밖의 여자 후렴구중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라는 부분에서 소리를 밖으로 쏘아내는 것과 같은 파워풀한 창법이 그것인데 그 이전에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발성법이라 상당히 획기적이었다. 또한 그러한 발성법은 동양인의 작은 체구에서 크고 우렁찬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팝음악의 소울과 국악의 창을 접목해서 표현한 사우팅 창법으로 파워풀한 가창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당시 모든 가수들이 조용필과 같은 발성을 구사하기 위해 너나할 것 없이 창을 배우러 다녔다.

일반적으로 유행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조용필의 창법은 체형이 작은 한국인이 파워풀한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가수들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목소리를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발성과 관련하여 상당부분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시대의 유행이라고 치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창밖의 여자”에서 보여준 조용필만의 발성법은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파워풀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초 랩, 힙합 등을 거치면서 중반 이후 우리 가요계는 흑인음악인 R&B(알앤비) 스타일의 노래가 유행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R&B에 소울

(Soul)이 가미된 보다 진한 스타일의 발라드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 흑인음악인 R&B 장르를 노래하는 가수들은 당연히 흑인가수들의 창법으로 노래를 불렀으며, 그러한 창법을 익히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하였다.

솔리드, 박정현, 바이브, 애즈원, 빅마마 등이 대표적인 가수들인데 이들이 10, 20대 젊은층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서 가요계에는 R&B 열풍이 불었다. 많은 신인가수들이 R&B 스타일의 앨범을 발표했고, 그러한 앨범들은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따라서 모든 제작자들도 R&B가 가능한 가수를 선발했고 부족한 경우 R&B 창법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시키기도 하였다. 서로 비슷한 종류의 곡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대중들은 좀 더 새로운, 좀 더 느낌 있는 노래를 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가수와 제작자들은 남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R&B 노래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울 등의 창법을 가미하여 보다 더 자극적이고 진한 스타일의 곡들이 발표되게 되었다.

2.2 소몰이 창법

2000년대 초 반, 어느 때 부터 인가 많은 가수들, 특히 젊은 가수들이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 하였다.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 비롯된 것도 아닌데 모든 가수들이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몰이 창법”인데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는 정체불명의 창법은 한동안 가요계의 대세를 이루었다.

소몰이 창법이란 소를 몰고 갈 때 “워- 워-” 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인데, 소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노래 할 때의 일반적인 목소리보다 소리에 호흡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과 전체적으로 소리보다 호흡이 먼저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목소리의 크기가 다소 크고, 우렁차다. 콧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트로트 음악에 비해 가슴소리, 즉 흉성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 대중들의 경우 소몰이 창법으로 노래하는 대표적인 외국가수로 제임스 잉그램, 존레전드, 레이찰스, 마이클볼튼 등과 국내가수로는 임재범, 박효신, SG워너비, 김진호, 원티드, 하동균, 플라이트투더스카이의 환희, JK김동욱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구분이 아니다. 그 이유는 소몰이 창법이라 불리는 가창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올바르게 없기 때문이다.

다른 가수들보다 성량이 크거나, 혹은 노래 중간에 워-워-하는 추임세를 넣으면 모두 다 소몰이 창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소몰이 창법이 어떤 특정한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창법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게 된 잘못된 결과 라 할 수 있다.

소몰이 창법은 흑인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 90년대 초반 정통 흑인음악인 R&B가 국내에 소개되었고 재미교포출신 가수들인 솔리드(김조한), 박정현 등 가수들의 노래가 히트를 하면서 유행을 하게 된다. 이때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발성에 노래 뒷부분을 꺾어 R&B의 특징만을 살려 노래했다. 따라서 흑인음악 고유의 깊은 느낌은 없었고 단지 R&B의 외형적인 부분만을 따라 부르는 형식이였다. 90년대 말부터 시작해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스타일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R&B에 역시 흑인음악인 소몰이창법이 도입되어 목소리에 섞이는 호흡의 양이 많아지고 성량이 커진 것이다. 어찌 보면 길모양만 흉내 낸 R&B에 비해 다소 진보된 발성이라 할 수 있다. 대중들 역시 비교적 원음에 보다 가까워진 노래에 매력을 느끼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스타일에 열광하였다.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2000년대 초반 가수 박효신의 등장은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가수들과는 사뭇 다른 굵고 볼륨감 있는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하였다. 그 동안 우리는 외국의 팝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볼륨감 있는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리 팝을 잘 부른다 해도 단순히 흉내에 불과할 뿐 성량이나 느낌 등 모든 것을 구사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효신은 타고난 체격조건과 뛰어난 성량으로 한국가수로서의 콤플렉스를 일거에 해소하였다.

큰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울림통 역할을 하는 상체부분, 소리의 통로이면서 소리를 내는 성대, 그리고 큰 입이다. 그와 더불어 머리와 키의 크기 역시 소리의 양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애당초 우리 신체 구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박효신의 성량은 기존의 가수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소리의 느낌(feel) 또한 흑인음악을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였다. 첫 번째 앨범발표와 함께 데뷔하면서 그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의 상징이 되었으며 대중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발성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해 많은 가수들이 그의 목소리를 따라 흉내 내기 시작했다. 박효신의 그러한 창법은 가수들뿐만 아니라 PD, 제작자들에게까지도 가수가 갖추어야할 가장 이상적인 창법으로 인식되어 너나 할 것 없이 그러한 스타일의 앨범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4년 SG 워너비가 음반을 발표하고 이 팀의 멤버인 김진호 역시 제법 성량감있는 굵은 목소리로 노래하였다. 그와 더불어 노래의 간주나 후반부

에 워--워--워-- 와 같은 추임새를 많이 넣었는데 이 또한 SG워너비의 빅히트와 함께 많은 가수들이 새로운 창법으로 인식하게 되어 흉내 내게 되었다. 그러한 흐름을 타고 원티드, 하동균, m2m, 플라이투더스카이, 씨야, 더원, 조은 등의 가수들이 그와 비슷한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이후 가요관계자들에 의해 소를 몰 때 내는 소리와 흡사하다 하여 “소몰이창법”이란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2.3 창법 비교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대표적인 소몰이 창법 가수로 알려졌던 박효신, 임재범, SG워너비 김진호의 창법을 각각 비교 분석, 소몰이 창법의 발성적인 특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3.1 박효신



어 느새 길어진- 그림 자를따-라서- 땅거



미진 어둠속-을 그대 와결고-있네요

[그림 1] 눈의 꽃
[Fig. 1] Snow Flower

박효신의 노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가슴통을 활용해 소리를 내는 것이고 두 번째 노래의 상당 부분 소리를 밖으로 밀어 낸다는 점 세 번째로 목소리에 호흡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 1 「눈의 꽃」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번째 마디의 「어」 부분과 네 번째 마디의 「미」와 「둠」 부분은 살짝 당기듯이 노래하였고, 그 외 전체적인 부분은 모두 소리에 호흡을 섞어 밖으로 쏟아내듯 불렀다.

노래의 앞부분이고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지 않는 부분일 경우 대부분 콧소리를 섞는 경우가 많은데 박효신은 잔잔한 느낌을 표현 할 때도 자신만의 좋은 발성을 활용하여 볼륨감 있는 발성으로 느낌을 표현 하였다.

아래 그림 2 박효신의 히트곡 중에 하나인 「바보」라는 곡인데 이 노래 역시 그 만에 창법이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인트로 부분에 워.. 워 하는 추임새와 악보 4소절 전체를 당기는 소리 없이 모두 소리에 호흡이 섞인 상태에서 밀어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리

에 호흡이 과하게 실려 있는 관계로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다소 성의 없게 들리는 특징이 있다.



[그림 2] 바보
[Fig. 2] Foolish

그림 1과 같이 약간 당기듯 부른 건 노래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겠으나 그림 2의 경우는 기존에 콧소리를 의존해서 부르던 가요 창법에 비해 매우 독특한 창법이였다.

2.3.2 SG워너비 김진호



[그림 3] 내 사랑 1
[Fig. 3] My lover 1

그림 3은 SG워너비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 「내 사랑」 중에 일부분이다. 소물이 창법을 논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으로 「워」 「워」 추임새가 소를 물 때 내는 소리와 같다 하여 소물이 창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많은 경우 워- 혹은 아-, 우-와 같은 추임새가 가요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성으로 소리 내는데 반해 김진호의 경우 워- 발음에 과도한 호흡을 섞어 크게 표현하다 보니 마치 소를 물 때 내는 소리와 흡사한 것처럼 들리게 되어 소물이 창법이란 별칭이 붙은 것이다.

아래 그림 4를 에서는 김진호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박효신과는 사뭇 다른 창법으로 소리 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내 사랑 2
[Fig. 4] My lover 2

박효신의 경우 한 음절 한 음절마다 호흡을 섞어 소리를 내는데 반해 김진호의 경우 호흡보다는 목을 비틀어 힘을 주어 소리를 낸다. 따라서 음색도 박효신과는 많이 다르다. 이러한 창법은 다음 그림 4에서도 볼 수 있는데 김진호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특히 고음부분에서 상체를 뒤로 재끼고 목을 비틀어 소리를 낸다. 얼핏 보면 매우 열창하는듯 보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충분한 성량과 음을 구사할 수 없어 목의 힘만을 의존해 비틀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중음이나 저음부분 보다 고음부분을 부를 때 이러한 현상이 심한데 이는 결국 호흡보다는 소리를 쥐어짜내며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5] 죄와 벌
[Fig. 5] Sin and Make



2.3.3 임재범



[그림 6] 사랑보다 깊은 상처 1
[Fig. 6] A Broken He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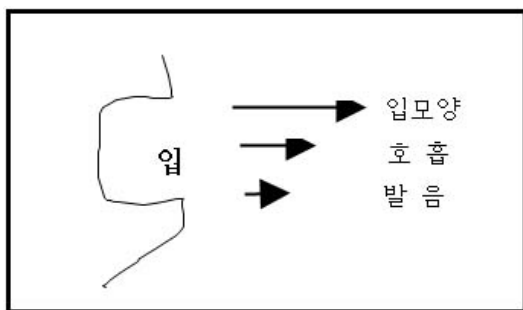
[그림 7] 사랑보다 깊은상처 2
[Fig. 7] A Broken Heart 2

위의 그림 5는 임재범의 대표곡인 「사랑보다 깊은 상처」의 전반부이고 그림 6은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인 후렴 부분이다.

박효신의 경우 노래의 전반부를 다소 과하게 호흡을 섞어 소리를 내다보니 발음이 부정확한 단점이 있었으나 임재범의 경우 아주 정확한 음정과 발음으로 노래하였다. 또한 후렴부분 역시 김진호의 경우는 목을 비틀어 소리를 쥐어짜듯 불렀으나 임재범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샤우팅 창법을 구사했다.

이는 백인들의 전형적인 Rock 발성으로 다소 거친듯한 소리에 커다란 체구에서 비롯될 수 있는 샤우팅 창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창법은 그림 6의 후렴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노래의 첫 부분부터 다소 거친 목소리에 호흡을 섞어 소리를 앞으로 쏟아내면서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2.4 분석



[그림 8] 소리 나오는 순서
[Fig. 8] The order that voice

소몰이 창법은 위-위- 하는 추임새 말고도 기존의 발성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 노래를 부를 때 입모양 발음과 호흡, 소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에 반해 소몰이 창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리에 호흡을 많이 섞어서 부른다는 점과 두 번째는 입

모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에 호흡이 나오면서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입을 벌리면서 소리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과 호흡과 발음 즉 소리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박효신이나 SG워너비 김진호, 하동균, m2m, 플라이투더스카이등은 위와 같은 방식을 바탕으로 노래했기 때문에 소몰이 창법이라 할 수 있지만, 임재범의 경우는 소몰이 창법이라기보다는 ROCK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샤우팅 창법이다. 외국가수들의 경우 음색이나 창법으로 봐선 제임스 잉그램이 이와 비슷하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레이찰스, 마이클 볼튼 역시 소몰이 창법과는 아무 관계없는 Rock이나 Soul 등본인의 음악 장르를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성을 하는 배경에는 흑인음악의 영향이 크다. 가요계의 흐름이 R&B와 소울을 거치면서 최대한 흑인보컬과 같은 Feel과 성량이 필요했지만 체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흑인음악 창법은 다른 장르 보다 목소리에 섞이는 호흡의 양이 아주 많다. 폐활량이 큰 흑인들 만에 독특한 창법인데 이러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선 호흡과 소리를 따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체격구조와 폐활량의 차이로 인해 한 번에 구사할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취해진 방법이며 그로 인해 소몰이 창법과 같은 창법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신인가수들 중에는 체계적으로 호흡이나 발성법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몰이 창법은 많은 후유증을 동반했다. 흑인보컬들의 경우 훌륭한 체격조건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그러한 소리를 오로지 성대 즉 목소리만을 이용해 억지로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무리한 성대의 사용으로 인해 성대결절은 물론이고 호흡의 강제배출은 두통을 동반하였다. 또한 소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두세 곡 이상 연속해서 부를 경우 몸에 무리가 와서 금방 피곤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어찌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결론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격이 크다. 서양인들 중에서도 흑인들은 체격뿐만 아니라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완벽한 체격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격조건을 극복하고 그들에 버금가는 뛰어난 창법을 만들어 낸 조용필은 그래서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조용필의 방법

은 의외로 단순하다. 샤우팅을 해결하기 위해 국악발성법을 응용했으며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대가 아닌 몸 즉 몸통으로 소리 내는 방법을 부단한 연습과정을 통해 만들어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가창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형태의 발성법이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인해 많은 가수들의 목소리가 변하게 되는 증상을 겪었다. 다시 말해 본래의 맑은 목소리는 사라지고 쉰 목소리만 남게 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심한 경우 노래할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 말을 할 때에도 쉰 목소리가 나는, 즉 목소리가 상하게 된 것이다. 어찌 보면 발성의 근본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은 무리한 발성이었고, 많은 가수들이 목소리가 완전히 변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그런식으로 발성연습을 하였다.

조용필의 경우 자신의 목소리가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창력을 최대한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그의 발성법이 인정을 받는 것이며, 지금까지도 그러한 발성법이 응용되고 있다.

소몰이 창법은 독특한 발성으로 인해 한때 대중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반면 잘못된 발성법의 부작용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약 5-6년 동안 유행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그와 같은 창법으로 노래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몰이 창법으로 노래했던 많은 가수들이 이제는 그러한 창법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References

- [1] Cho Taeseon A Study on breathing and vocalization for popular music, Jungb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2] Park Seunghee Became the singer, NokJin 1994.
- [3] Park Aekyung Hoe is that popularsong to read, Cheaksesang 2000.
- [4] Choi Donghyun Pansori story, Gakga 1999.
- [5] Hukusiae I'm great singer, Areum 2002.
- [6] Oh Hanseung I can be a singer, Kimyoungsa 2001.
- [7] Kim Hyeyeon Studio on the breathing and vocalization for vocalist-Singing in Nature Voice, Choongw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8] Cho Tae seon A study on role and method of vocal direction Media & Performing Arts, Choongwoon University, Broadcasting & Arts Research Institute, 2008.
- [9] Bang Huynseung A Study on Jazz Vocal Improvisation Dongd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조 태 선(Tael-Seon Cho)

[종신회원]



- 1983년 10월 : MBC 대학가요제 금상수상
- 1988년 3월 : 솔로 1집앨범 발표
- 1995년 12월 : 뮤지컬 왕과나 음악감독(예술의전당 공연)
- 1987년 5월 ~ 현재 : 한국음악 저작권협회회원
- 2002년 4월 : TJB음악토크쇼 음악이 머무는밤 MC
- 2010년 3월 : 한국 실용음악 연구회 회장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싱어송라이터